

需要減退로 苦戰하는 美石油業界

美國석유업계는 不況에 따른 석유수요의 감퇴로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

금년 1/4분기중 美석유업계는 이익의 감소를 나타냈으며, 정유공장의 가동율도 70%이하의 기록적인 低수준으로 떨어져 정유공장의 폐쇄, 가동율의 하향조정과 일부지역에서는 석유제품가격의 인하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또 美석유업계는 지난 1/4분기중 20~25%의 減益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해외의 비싼 원유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회사의 減益率이 높은데, 걸프·오일의 경우 대폭적인 減益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그 밖에 셸·오일, 게티·오일, 유니언·오일, 필립스·페트롤리엄이 10~15% 정도의 減益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美國내에서의 생산비율이 높고 정

제, 판매부분이 적은 스탠다드·오일(오하이오)은 5% 増益을 보였고, 배럴당 32달러의 비교적 싼 사우디 原油를 도입하고 있는 엑슨, 텍사코, 스탠다드·오일(캘리포니아), 모빌·오일등도 큰 減益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美國의 휘발유수요는 3월말 현재 전년 同期比 7%가 감소한데 반해 재고는 2억 8천 3백만 배럴을 넘어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코메코가 오는 5월까지 미네소타주의 렌샬정유공장(정제능력 日量 2만 3천 5백배럴)을, 모빌은 버팔로의 정유공장(同 4만 3천배럴)을 가까운 장래에 각각 폐쇄하기로 결정했으며, 걸프·오일, 스탠다드·오일(인디애너), 텍사코도 폐쇄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美석유업계의 가동율은 현재 68.7%로 전년동기의 78.2%를 크게 하회하고 있다.

IEA, 先進국에너지 消費展望

IEA(國際에너지機構)는 최근 지난 73년 제 1차 석유위기 이후 회원 21개국의 에너지 절약상태와 앞으로의 展望을 수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IEA는 이 보고서에서 先進工業국이 90년까지 石炭이용량을 2배로, 原子力 發電량을 3배로 증가시킬 것이며, 아울러 에너지절약을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輸入石油에의 의존도를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회원 21개국이 79년에 제품생산에 사용한 에너지량은 同量의 제품에 있어서 73년과 비교하면 8%가 줄어들

었다. 이들 제국은 또한 73년부터 79년에 걸쳐 제품생산에 필요한 石油를 代替에너지源으로 代替시킴으로써 석유소비량을 11% 감소시켰다.

IEA는 또한 회원 21개국의 에너지 생산량이 73년부터 79년에 걸쳐 10%이상 증가한 것으로 밝히고 있는데 특히 78, 79년의 증가세가 현저했다.

IEA 회원국의 에너지절약에 관해 포괄적인 분석보고서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보고서는 회원각국의 에너지 절약이 「마야흐로 본격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